



## '03 1st HAB 국제 심포지엄

박성오 / 대한수의사회 기획실

우 리회에서는 11월 2일 삼성 에버랜드 힐사이드호텔에서 '03 1st HAB 국제 심포지엄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Animal Bond)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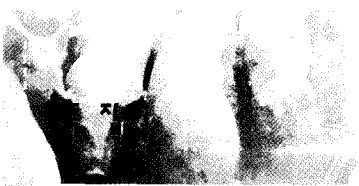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어울려갈 수 있는 동물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찾고자 함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된 이유이다. 인간이외의 다른 종의 생명체들에 대해 일방적 보전도 이기적인 착취도 아닌 동물의 정당한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새로운 성숙한 관계 맺기를 시도한 이번 “HAB 국제 심포지엄”이 동물문화에 대한 기준과 인식이 미약한 우리나라에 “Human Animal Bond(동물과 인간의 올바른 유대관

대)”의 새로운 소개를 넘어 동물과 올바른 관계 맺기의 첫 단추가 되길 기원한다.』라는 심포지엄의 개최사처럼 “동물과 인간의 올바른 유대관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정립이 부재하고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우리나라에 “Human Animal Bond”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을 창출해 내고자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이다.

### 1. “HAB” 소개

#### “Human Animal Bond”의 정의

“동물과 인간의 올바른 유대관계”-사람과 동물사이에 일방적 착취의 관계가 아닌 기본적인 생명체의 존중, 인간과 동물의 상호적



인 복지를 바탕으로 동물들의 정당한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여 자연과 인간과 동물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뜻한다.

“HAB”란 항상 동물을 대하는 대부분의 수의사에게도 다소 생소한 용어라 생각되지만 이미 우리생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동물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으로써 일방적인 애호의 대상인 ‘애완동물’에서 동물과 인간의 유대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이라는 부르며 가족의 구성원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동물과 인간사이의 유대관계, 상호작용(복지)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다.

### “Human Animal Bond”의 유래

“Human Animal Bond”의 명칭을 처음 사용하고 이론을 제창한 것은 1977년 미국의 오레곤에서 정신과 의사인 Michael McCulloch, MD에 의해 설립된 Delta Foundation(Society)의 초대 회장인 수의사 레오 버스타드(Leo K. Bustad, DVM, PhD)에 의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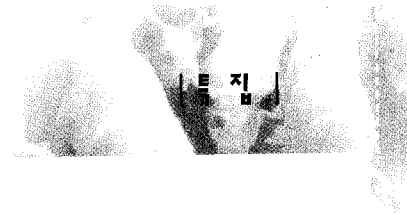
델타협회는 수의학, 의학, 임상심리학, 동물행동학, 철학, 사회학 등의 학문을 접목하여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을 해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레오 버스타드는 HAB를 실제 사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당시만 해도 ‘애완동물’은 사치스러운 대상이거나 광고의 아이템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고, 동물을 통한 인간의 건강과 안녕의 증진을 인식하지는 못했었다. 초기 델타협회는 동물이 인간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실제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초기 연구를 통해 동물이 일성적인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인간의 질병과 장애를 극복하는데 까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델타협회(Delta Society)에서 제정한 동물 매개 활동(AAA : Animal-Assisted Activities)과 동물 매개 치료(AAT : Animal-Assisted Therapy)의 표준안은 반려동물 매개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고 있다.

### “Human Animal Bond”를 바탕으로 한 활동 사례

외국의 경우는 “HAB”가 우리나라처럼 생소한 용어는 아니다. 동물과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학교나 단체들에서 협회 또는 소모임이나 위원회의 형식으로 다양한 동물매개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중 구체적으로 동물매개치료(AAT)와 동물매개활동(AAA)을 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 ■ IAHAI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uman Animal Interaction Organization)

- 치료견과 관련되어 1990년에 발족된 국제기구로서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하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고 매 3년 마다 회의 개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단체 또는 개인에 시상을 한다.
-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한 15개국이 정회원, 준회원, 제휴회원으로 구성

### ■ 미국의 Delta Society

- 동물매개활동(AAA : Animal-Assisted Activity)  
동물매개활동이란 동물들과 직,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교감을 나누는 등의 상호작용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대인관계의 장애나 정신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정서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동물매개치료(AAT : Animal-Assisted Therapy)  
동물매개치료란 동물매개활동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특정한 자격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목표 지향적 활동으로 시각장애인안내견, 청각보조견, 재활보조견, 재활승마등 인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향상을 도움을 주는 행위로서 자신의 전문영역안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 ■ 일본의 동물병원협회(Japanese Animal Hospital Association)의 CAPP활동

- 반려동물파트너쉽(CAPP : Companion Animal Partnership Program)  
동물매개활동의 의미와 비슷한 치료견 활동으로 환자들이 동물을 대하면서 쓰디듬고 체온을 느끼는 등의 본능적인 행위 안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 ■ 영국의 PRO DOGS

- National Charity단체로서 1985년부터 본격적인 치료견활동을 해왔다.

## Human Animal Bond의 변화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고기와 가축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애호의 대상(Pet)으로 발전하였고 이제는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서 가족 내에서 하나의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생명체사이의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보다 밀접한 '유대감'의 형태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회속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존재를 확인하는데 “대인관계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치료에 동물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은 사회속의 다른 구성원이라는 것이 같은 종의 생명체인 사람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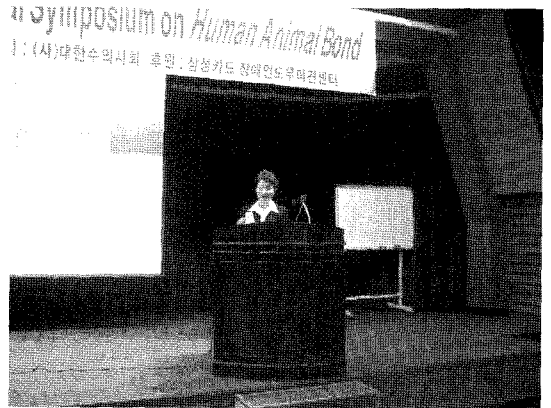
동물과 생명의 존중으로부터 시작되는 유대감을 더욱 발전시키고 동물들의 새로운 역할을 연구하는 것이 자연과 동물과 인간의 사이에서 새로운 건강한 관계를 위한 변화의 모습이다.

## 2. '03 1st HAB 국제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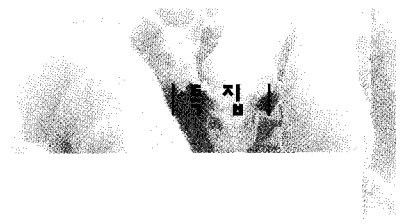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신남식교수의 발표

우리회 이우재회장(대독 김옥경부회장)의



▲ Dr. Hiroko Shibana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심포지엄은 델타협회의 쉐들러교수(Prof. Cynthia K. Chandler)와 전 일본동물병원협회(JAHA : Japanese Animal Hospital Association)회장으로 일본내 CAPP(Companion Animal Partnership Program)활동을 실시하고 NHK의 TV 및 라디오에서 반려동물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시바나이수의사(Dr. Hiroko Shibana)를 포함 국내의 HAB관련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가 하였고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문한학장, 전남대 수의과대학 강문일학장, 우리회 김옥경부회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명원장, 육군본부의무감실 수의병과장(우리회 군진지부장) 노천섭대령, 한국동물병원협의회 홍하일 명예회장, 한국동물복지협회 조희경대표, 이름품 이주옥대표를 비롯한 각 학계, 관련단체 및 수의사등 1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 심포지엄 세부프로그램과 연사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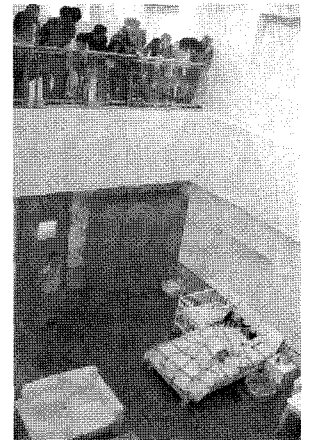


▲ Prof. Cynthia K. Chandler의 발표

- Introduction of HAB : “인간과 동물의 상호관계”에 대한 주제로 서울대 수의과대학, 우리회 HAB위원장 신남식 교수가 발표
- 미국의 HAB역사와 현황 : “미국에서의 동물보조치료(Animal Assisted Therapy)에 대한 주제로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교육대학 첸들러교수가 발표
- 일본의 HAB역사와 현황 : “일본의 HAB활동과 CAPP활동”에 대한 주제로 전 일본동물병원협회장 Dr. 시바나이가 발표
- 치료건의 한국 내 적용가능 분야 : “한국에서 AAA/AAT 활용 영역과 가능

성”에 대한 주제로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김양순교수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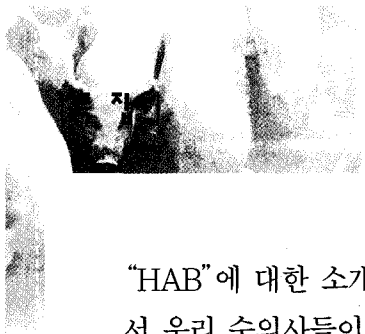
- 치료건 관련 미국연수 사례 발표 : “University of North Texas와 Conference on Humane Education” 참가에 대한 후기를 삼성카드 장애인도우미견센터(이하 도우미견센터)의 이주연주임이 발표
- 한국의 HAB역사와 현황 : “삼성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HAB소개”에 대한 주제로 도우미견센터의 최윤주부장이 발표
- HAB관련 에버랜드 국제화기획실 사업 견학 : 도우미견센터, 안내견학교, 구조견센터 견학 및 소개를 도우미견센터 이동훈 과장의 안내로 실시



▲ 삼성카드 장애인도우미견센터의 보청견시범

## 3. Human Animal Bond에 대한 수의사들의 역할을 제안하며

우리회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HAB”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 수의사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함께 “인간과 동물의 올바른 유대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행사를 준비하였다.

물론, 현재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나가는 국내외 동물매개활동(AAA)과 동물매개치료(AAT)관련 단체의 활동들만이 “HAB”의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동물들과 접촉하고 바라보며 “어떻게 동물을 대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두 “HAB”의 시작이며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지고 전문가들에 의해 더욱 연구되어 동물의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 새로운 역할은 다시 동물에 대한 처우 및 복지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며 이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상호적인 복지를 바탕으로 동물의 정당한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게 되고 성숙한 관계 맺기 즉, “인간과 동물의 올바른 유대관계”가 이루어진다.

1987년부터 일본동물병원협회(JAHA)는 일본 내에서 CAPP(Companion Animal Partnership Program)으로 동물매개활동(AAA), 동물매개치료(AAT), 동물매개교육(AAE : Animal Assisted Therapy, 성

장단계에 있는 아동들의 뇌 발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동물이라는 것에서 시작된 활동) 등 HAB활동을 주도적 수행해왔고 우리회에서도 1994년 전국수의사대회를 개최하며 “동물을 통한 인간의 정서함양”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실시하여 HAB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 한국동물병원협의회(KAHA)에서는 “동물은 내친구 운동(CAPP)”의 일환으로 홍보책자발행, 애견문화교실, 이삭애견훈련소와 함께한 안내견/보청견사업, 보육원방문등을 실시하면서 HAB의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였고 아울러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홍보하였다.

이러한 수의사들의 노고가 재조명되어야 하고, 동물에 대한 전반적 부분을 학습하고 1차적인 복지인 치료를 담당하는 우리 수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맞는 HAB가 정착되고 사회적인 인식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많은 역할을 수행해나가기를 바라는 뜻으로 11월 2일에 개최한 “2003년 1st HAB국제 심포지엄” 참가한 국내외 연사들의 원고를 정리하여 연재형식으로 회지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수의사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